

태평양회의와 홍진*

김 용 달**

국문초록

이 연구는 태평양회의(워싱턴회의)를 전후한 시기 홍진의 활동과 태평양회의에 대한 그의 역할을 고찰한 것이다. 홍진은 대한제국 말기부터 1910년대에 걸쳐 충주지역에서 검사,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맥과 지연을 쌓았다. 3.1운동 시기에는 넓은 인맥과 지연을 활용하여 국민대회를 조직하여 한성정부 수립 운동을 실행하였다. 한성정부 각료와 13도 대표자, 그리고 평정관 등 주요 인물을 선정하는데, 그동안 쌓았던 인맥과 지연을 활용한 것이다.

상해 망명 이후 홍진은 빠르게 민족지도자로 부상하여 임시의정원 의원과 의장, 그리고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간사장이 되었다. 물론 이런 성장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인적 자산과 품성이 밑받침되었고, 초기 임시정부를 주도하던 안창호의 조력도 작용했다. 태평양회의 시기 홍진은 외교후원회와 임시의정원을 통해 여러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원내에서는 정부를 도와 한국대표단을 선출하고 임시예산을 통과시키고, 25인의 의원 명의로 '독립청원서'를 태평양회의에 보냈다. 원내에서는 외교후원회의 간사장을 맡아 연설회를 개최하여 독립의지를 고취하며 후원 자금을 모집하였다. 나아가 '선언서'를 발표하고 「선전」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며 외곽에서 태평양회의의 한국대표단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열강은 한국의 독립 승인을 커녕 한국대표단의 참가도 거부하였고, 결국 태평양회의는 1922년 2월 6일 속절없이 끝나버렸다.

이후의 정세는 태평양회의에 집중했던 임시정부는 물론 민족주의세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임시정부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어 태평양회의 시기 침잠했던 국민대표회의의 소집 문제가 재차 부상하였다. 태평양회의에 대하여 같은 시기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의(극동인민대표회의)에서 레닌정부는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여 사회주의세력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상해는 물론 국내로 사회주의의 전파가 확대되고 세력은 확장되었던 것이다. 민족주의세력은 분열되어 약화하였다. 태평양회의에서 격상된 일본의 위상을 목격하면서 절대독립을 포기하고 자치를 지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민족개량주의)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세력은 '절대독립론'을 고수하는 비타협파와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파로 나뉘고, 결국 타협파는 독립운동전선에서 이탈하면서 민족주의세력을 약화시켜 갔다.

임시정부 또한 태평양회의에 대한 외교 실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다. 태평양회의가 끝난 뒤 1922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내무총장 이동녕을 필두로 국무총리 대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과 재무총장

* 본고는 제6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산학연구소(역사문화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태평양회의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前 연구소장 / dcyongdal@gmail.com

이시영 등 국무위원이 총사직한 것이다. 원내외에 왕성하게 태평양회의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쳤던 홍진도 책임을 통감하고 4월 3일 의정원 의장을 사임하였다. 임시대통령이자 한국대표단의 대표장 이승만도 실패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다. 1921년 초부터 불거진 사퇴 압력을 태평양회의로 일시 피해 갔지만,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나자 사퇴 압력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주제에] 홍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태평양회의(위싱턴회의),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안창호

— | 목 차 | —

- | | |
|---------------------|--------------------|
| I. 머리말 | III. 태평양회의와 홍진의 활동 |
| II. 태평양회의 이전 홍진의 활동 | IV. 맺음말 |

I. 머리말

洪鎭은 사회적 자산이 풍부한 인물이다. 우선 지연이 남달랐다. 원적은 충북 영동이었지만, 서울 차동(현 서소문)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성장했다. 지역적 연고로만 보면 전형적인 기호출신이지만, 서북인들과도 가까웠다. 그것은 한말부터 1910년대를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보냈기 때문이다. 홍진은 한성법관양성소를 마친 뒤, 1906년 12월부터 忠州區재판소 검사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다. 1908년 5월 사임한 뒤부터는 곧바로 평양지방재판소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평양에서 활동하였다. 그가 왜 출생지인 서울과 근무지인 충주를 떠나 평양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향후 홍진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되었다.

홍진의 활동 자산도 풍성하였다. 특히 그가 3.1운동 시기 서울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국민대회’를 조직하는데¹⁾ 앞장선 일은 매우 귀중한 활동자산이었다. 13도 대표자와 종교계 등 각계 대표자로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정부의 각원과 평정관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한성정부를 수립하였다. 물론 당시 엄혹한 상황에서 이 과정이 순서대로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국민대회 주도자들에 의해 동시에 이뤄졌다고 보인다. 하지만 국민대회를 조직하여 한성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쌓인 다수 인물들과의 관계 및 상호 신뢰는 그를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나서게 하는 활동 자산이 되었다. 중국 망명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입법수장인 임시의정원 의장, 행정수반인 국무령, 만주 한국독립당 중앙위원장, 그리고 중경시기 임시의정원의 좌

1) ‘국민대회’는 사실 초기에는 ‘한성정부’ 수립과 이를 대내외에 선포하려는 국민대회를 조직하기 위한 모임의 이름이었다. 그러다가 ‘국민대회’ 주도자들이 한성정부를 추진 받기 위해 국민대회를 추진 개최하면서 국민대회가 보통명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의 서명 대표단체의 하나로 ‘국민대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우합작 통일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풍성한 활동자산을 쌓았다. 이 같은 사회적 자산과 활동 자산은 홍진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편향되지 않은 중도파, 정파적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파, 인간적으로는 개방성과 포용력을 겸비한 중후한 민족지도자로 자리 매김하지 않았나 싶다.

당대의 인물평도 필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생의 천성은 方正하나 包容이 크고, 強直하나 圓滿하며 慷慨하며 磊落하며 堅忍하며, 또 가장 大義를 尊重하며 勢利에 지극히 澹泊하여 一毫의 野慾이 업난 介潔한 志士의 典型 그대로인데 더욱 見識이 透徹하고 思想이 탁월하며 또 些毫의 黨派 氣味가 업난 이다.”²⁾ 이는 1926년 7월 8일 홍진이 국무령에 취임한 뒤 「독립신문」에 실린 인물평이자 상찬이다. 곧 홍진을 개결한 지사의 전형으로 포용력이 크고 원만하며 당파의 기미가 없는 인물로 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태평양회의(위싱턴회의)를 전후한 시기 홍진의 활동과 태평양회의에 대한 그의 역할을 고찰한 것이다. 홍진에 대해서는 한시준에 의해 자료가 집대성되고 생애 전반에 걸친 활동의 전모도 밝혀졌다.³⁾ 태평양회의에 대해서는 방선주와 고정휴에 의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⁴⁾ 기왕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태평양회의를 前後한 시기 홍진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II. 태평양회의 이전 홍진의 활동

1. 국내에서의 한성정부 조직 활동

중국 망명 이전 국내에서 홍진의 활동 가운데 가장 괄목할만한 대목은 3.1운동 중 ‘국민대회’ 조직과 이른바 ‘한성정부’ 수립 운동이다. 이런 일은 적지 않은 재력과 인적 자원이 필요한 일이다. 홍진은 여기에 적격이었다. 그는 자연과 활동 인연을 바탕으로 많은 민족 지사 및 자산가와 교류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말 충주구재판소 검사로 일하면서 ‘의병사건’을 담당하기도 해서 기호의병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다. 이후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북지역 인물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쌓았다. 단편적이지만 평양에서의 활동 이력이 증명해준다.

홍진은 1910년 12월 북간도로 이주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차병수·옥성빈 등이 일경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차병수 사건’, 소위 ‘평양 음모 사건’을 변호하였다.⁵⁾ 이와 함께 1913년 4월 평양자전차경주대회에

2) 「독립신문」, 1926년 9월 3일자.

3) 만오홍진전집간행위원회 편, 『만오홍진전집』, 국회도서관, 2006;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역사공간, 2016; 한시준, 『한성정부 수립과 홍진』, 『한국근현대사연구』 2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한시준, 『민족유일당운동과 홍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한시준, 『홍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원문화연구』 13,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0.

4) 고정휴, 『위싱턴회의(1921~1922)와 한국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고정휴, 『한국인민致태평양회의서(1921) 진위 논란과 서명인 분석』, 『한국근현대사연구』 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방선주, 『1921~22년의 위싱턴회의와 재미한인의 독립청원운동』,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8, 국사편찬위원회, 1989.

5) 「매일신보」, 1913년 2월 11일자, 2월 25일자.

상품을 후원하고,⁶⁾ 평양법조회의 주요 인물로 1916년 1월 서화회와⁷⁾ 3월 바둑대회를 개최하는⁸⁾ 등 평양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활동하였다. 더욱이 이 시기 그는 영남 인사들과도 교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영남의 유력한 인물인 金應燮과 평양에서 합동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김응섭은 한성법관양성소 후배였지만, 한 살 아래 동년배였다. 특히 김응섭은 경북 안동 풍산출신으로 경주최씨 최부자집과 인척관계에 있었다. 그의 형 김정섭은 안동의 의병활동을 기록한 ‘을미병신일록’을 남긴 애국지사였다.⁹⁾ 김응섭은 1907년 12월 법관양성소를 마친 뒤, 함흥재판소 검사¹⁰⁾와 영변구재판소 판사를 거쳐 1911년 4월 평양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로 임명되자 곧 바로 사직하였다. 그리고 평양에서 홍진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¹¹⁾ 그 뒤 1915년 후반기 대구로 옮겨 조선국권회복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3.1운동 중 파리장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상해로 망명한 인물이었다.¹²⁾ 달리 말하면 홍진은 김응섭을 통해 영남인물들과도 맥이 닿고 있었다는 얘기다.

홍진이 평양에서 서울로 옮긴 시기는 언제인가. “홍면희씨 (1918) 4월 20일 평양으로부터 입경”이라는 동정 기사로¹³⁾봐, 3.1운동 직전인 1918년 4월 20일 서울로 옮겨 왔다. 3.1운동이 발발하자 홍진은 3월 중순 경부터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민대회 조직 활동에 나섰다. 국민대회가 중심이 된 한성정부 수립운동은 이미 한시준, 고정휴,¹⁴⁾ 이현주¹⁵⁾ 등의 연구에 의해 전모가 밝혀졌다. 때문에 여기서는 홍진의 역할에 주목한다. 국민대회를 조직하여 한성정부를 수립한 일은 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결정·경성복심법원 판결문과 공판시말서 등 재판기록이나 회고록 등을 종합해 볼 때, 홍진과 이규갑·한남수·안상덕·김규·김사국 등이 주동하였다.

李奎甲은 충남 아산출신으로 협성신학교와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공주 영명학교 교감을 지낸 뒤, 3.1운동 직전까지 평양 남산현교회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홍진과는 같은 기호출신으로 지연이 있고, 평양에서 활동하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경성복심법원 공판시말서에는 이들 두 사람이 국민대회 조직을 계획하고 한성정부 수립을 주도한 것으로 나온다. 韓南洙는 전남 광주 사람으로 영암에서 출생하였고, “홍면희(홍진)는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규갑은 작년(1919) 4월 2일 비로소 만났던 사람이다”고¹⁶⁾ 하였다. 홍진의 말을 듣고 독립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일찍부터 홍진과 막역한 사이였던 것 같다. 주로 대외 연락과 자금 모집 등의 역할을 맡았다. 安商應은 서울사람으로 충북 괴산에서 출생하여 홍진과 지연이 깊었다. 그는 천도교인으로 중개업에 종사하였고, 주로 천도교계와 교섭을 맡고 운동자금을 제공하였다. 金奎는 충남 유성출신

6) 「매일신보」, 1913년 4월 26일자.

7) 「매일신보」, 1916년 1월 14일자.

8) 「매일신보」, 1916년 3월 5일자.

9) 김용달, 『살신성인의 길을 간 의열투쟁가 김지섭』, 독립기념관, 2017, 68쪽.

10) 국사편찬위원회 편, 『1908년도 대한제국 직원록』, 349쪽.

11) 김용달, 『김응섭과 한족노동당』, 『한국독립운동의 인물과 노선』, 한울, 2004, 203쪽.

12) 경성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184쪽.

13) 「매일신보」, 1918년 4월 23일자.

14) 고정휴,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1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참조.

15) 이현주, 『3.1운동 직후 ‘국민대회’와 임시정부 수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참조.

16) 국사편찬위원회 편, 『경성복심법원 공판시말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1994 참조.

의 유생으로 金敎勳이라고도 하고, 국민대회 13도대표자 명단에 金鑾로 잘못 표기된 인물로 보인다. 이 또한 홍진의 요청으로 국민대회에 참여하였고, 주로 유교계 인사들을 교섭하는 역할을 맡았다. 金思國은 서울 사람으로 전북 함열에서 태어났다. 이규갑의 요청으로 국민대회에 참여하여 주로 학생층과 교섭하며 국민대회 당일 학생동원 책임을 맡았다.

사실 이들이 국민대회를 조직하여 한성정부를 수립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7일 서울 내자동 한성오의 집에서 첫 모임을 갖고 국민대회를 조직하여 한성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이어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 모여 13도대표자와 정부 각원 및 평정관을 선발하고, 약법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4월 23일 13도대표자는 서울 서린동 봉춘관에서 모임을 갖고, 민중과 학생은 종로네거리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한성정부를 대내외에 선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주동자들 가운데 홍진과 김사국·안상덕은 국민대회와 한성정부의 어떤 자리도 맡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규갑은 한성정부 평정관, 한남수는 평정관과 재무차장, 김규는 13도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는데, 홍진과 김사국·안상덕은 빠졌다. 김사국은 “나는 나이도 적고 지식도 없으며 또한 신병이 있으니 참가하지 못한다고 거절”했으니,¹⁷⁾ 국민대회의 역원 명단에 빠진 단서가 되겠다. 하지만 홍진과 안상덕은 국민대회와 한성정부의 조직을 계획하여 추진한 핵심인물인데, 왜 역원 명단에서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한남수가 “(한성정부 선포) 국민대회를 했다는 것은 뒤에 홍면희에게서 들었다”고¹⁸⁾ 말한 사실로 보아, 국민대회를 완수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이와 같이 홍진은 국민대회를 조직하여 한성정부를 수립하는 일을 주도하면서 여기에 관계한 다수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교류하며 풍부한 인적 자산을 확보하였다. 이는 향후 그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또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큰 운동 자산이 되었다.

2. 상해 망명 후 임시정부에서의 활동

홍진이 상해로 망명한 시기는 언제인가. 국민대회는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모임을 가진 뒤, 한성정부 수립 계획을 상해 독립운동계에 알리고 동향을 살피기 위해 4월 8일 한남수를 대표로 파견하였다. 한남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인 4월 16일 상해에 도착했지만, 한동안 밀정으로 오해를 사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국내에 알릴 수 없었다. 결국 4월 21일야야 ‘인삼 시세가 나쁘니 사지 말라’, 곧 국민대회를 열어 한성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지 말라는 전보를 쳤다. 하지만 이 또한 바로 국민대회 주동자인 김규에게 전달되지 않아 한성정부 선포는 계획대로 실행되었다. 홍진은 상해로 파견한 한남수로부터 소식이 없자, 4월 15·16일경 서울을 출발하여 이규갑과 함께 평양과 중국 단동을 거쳐 20일경 상해에 도착했다고¹⁹⁾ 한다. 이는 “평양의 야소교 목사(전도사의 오류) 李奎昉(이규갑의 오류)은 평양 변호사 홍면희와 동반하여 상

17) 국사편찬위원회 편, 「경성복심법원 공판시말서」 참조.

18) 국사편찬위원회 편, 「경성복심법원 공판시말서」 참조.

19) 한시준, 「한성정부를 수립한 홍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역사공간, 2016, 49~50쪽.

해에 왔다”고 하는 상해발 4월 29일자 일제의 정보보고에도²⁰⁾ 언급된 내용이다. 이로 보아 홍진은 4월 15일이나 16일 서울을 출발하여 중국 망명길에 올라 4월 20일경 상해에 도착하였다. 그것은 홍진이 최초로 임시의정원의 충청도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것이 4월 30일인 사실을²¹⁾ 보아도 그렇다. 이때의 의원은 4월 25일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한 직후 이 법에 따라 각도 대표 및 만주·노령·미주지역 대표 의원을 새로 선발하였기에 늦어도 4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는 도착했을 것이다.

임시의정원의 충청도대표 의원으로 申櫟(신규식)·李命教·俞政根과 함께 선출된 뒤, 홍진은 제4회 회의(4.30~5.12)에서는 오의선·손두환과 함께 청원법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법률 전문가로서 맡은 직한 자리였다. 임시의정원 제5회 회의(7.7~7.19)에서는 법제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법무총장선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정작 임시정부 통합을 위한 승인·개조 문제로 뜨거웠던 제6회 회의(8.18~9.17) 의원 명단에는 홍진이 없다. 그렇지만 이즈음에도 승인 개조 문제로 국무총리 취임을 거부하고 있던 이동휘를 찾아가 ‘희생’을 강조하며 취임을 종용할 만큼 열심이었다. 당시 임시정부 통합운동은 안창호가 앞장섰기 때문에 한성정부 수립을 주도하면서 이동휘를 국무총리, 안창호를 노동국 총판으로 선임했던 사람으로서 뒷배가 되었던 것이다.

홍진이 다시 충청도 의원으로 복귀하는 것은 1920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린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이다. 이때 그는 정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군사분과를 담당하였다. 정무조사특별위원회는 “법제, 외교, 군사, 재정 4분과로 나누어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기²²⁾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즈음 임시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하여 외교노선에서 독립전쟁 노선으로의 선회를 표방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휘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와 구미 재정권 장악 등에 불만을 가져왔던 이동휘는 1920년 2월 26일 안창호에게 시국 ‘亂狀’을 제의하였다.²³⁾ 곧 이승만 축출과 임시정부 개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안창호는 이에 반대하면서 각계각층의 유력인사를 망라한 ‘중견 단체’²⁴⁾ 조직을 추진하였다. 주목되는 대목은 도산일기를 보면, 1920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에 걸쳐 안창호가 10차례나 홍진을 방문하거나 면회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홍진이 안창호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홍진이 한말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래 매우 우호적인 사이로 보인다. 기호세력이 중심이 된 한성정부에서 안창호가 노동국 총판으로 선임되거나 임시정부 통합 과정에서 뒷배가 되었던 홍진의 역할에서도 드러난다. 그렇다면 홍진이 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도산의 ‘중견 단체’ 조직에 동조하기 어려웠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홍진은 당시 이승만 정부 중심의 정국 운영을 지지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정부 수반과 각료가 한성정부안 그대로 승인된 인물들이고, 또 자신을 비롯한 국민대회 주동자들이 조직한 정부였기 때문일 것이다.

20) 機密 第2128號 대정 8년 5월 12일, 「獨立運動에 관한 건(國外日報 제67보), 上海方面情報(4월 29일)」 참조.

21) 국사편찬위원회 편, ‘제4회 임시의정원기사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2, 2005, 24~25쪽.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제4회 임시의정원기사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2, 67쪽.

23)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250쪽.

24) 도산일기 1920년 4월 21일자.

Ⅲ. 태평양회의와 홍진의 활동

1.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의 조직과 활동

1921년에 들어와 정세가 급격하게 변했다. 1920년 12월 8일 대통령 이승만은 임지인 상해로 부임하였지만, 국무총리 이동휘와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독립운동 이념과 노선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외교론과 무장투쟁론으로 서로 맞지 않았다. 태생적으로도 기호파와 관북파로 갈렸고, 활동지역도 미주와 만주·노령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기에 이승만은 위임통치 청원자라는 원죄도 갖고 있었다. 결국 서로의 갈등으로 이동휘는 1921년 1월 26일 국무총리를 사퇴하고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을 조직하여 공산주의 세력 확대에 힘써 나갔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은 안창호에게 국무총리를 맡아줄 것을 제의하였지만, 안창호는 정국 수습을 위해 군무총장 노백린과 함께 이승만의 사퇴를 요구하였다.²⁵⁾ 이승만은 처음 사퇴에 동의하였지만, 나중에는 기호출신 총장들과 상의한 뒤 마음을 바꿨다. 이런 와중에 4월 19일 상해에서 신채호·김창숙·김원봉 등 54인의 이승만 반대파 인사들이 ‘이승만 성토문’을 발표하고, 의열단 등 반대파 청년들이 암살을 계획한다는 풍문이 돌았다.²⁶⁾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법무총장 신규식을 국무총리 대리로 임명하고, 5월 18일자로 ‘임시대통령 유고’를 발표한 뒤²⁷⁾ 도미하고 말았다. 안창호도 5월 12일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주장하며 노동국 총판을 사임함으로써 초기 임시정부를 이끌던 3거두 가운데 2인이 떠나고, 대통령 이승만은 다시 상해 임지를 떠나 정국은 더욱 난관에 봉착하였다.

정국이 격동하던 이 시기에 충청도 대표의원으로 임시의정원 제8회(1921.2.28.~5.20) 회의에 참석한 홍진은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힘써 나갔다. 4월 30일 회의에서 “현 시국 해결책에 대하여 원만히 결의함을 요하며, 또는 우리가 각 국무원의 의사도 듣고, 또 우리의 의심되는 바를 질문도 할 필요가 있는 즉, 내주 수요일 정각에는 쏘 국무원이 출석하여 정부의 과거의 경과한 사실과 장래의 진행할 방침 또는 국무원 각 개인의 의견을 원만히 설명하여 주기를 정부에 요구”²⁸⁾하는 등 ‘현 시국 해결책’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청하였다. 5월 3일 회의에서는 윤기섭 외 13인의 의원과 연서로, “임시의정원은 임시대통령과 국무원으로 하여금 각 문무관원을 일주일 이내에 정선 임면하고 책임상 희생적 결심 하에 더욱 독려 결속하여 제반 정무를 급속 정돈케 하기를 결의함”²⁹⁾이라는 ‘정부축성 제의안’을 내기도 하였다. 임시의정원 의원으로서 정부를 정돈하여 정국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5월 6일 회의에서는 손정도의 후임으로 임시의정원 3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³⁰⁾ 홍진은 4월 20일 장봉 후임으로 상해 대한교민단장에도 선임되었지만,³¹⁾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25) 도산일기 1921년 2월 27일자.

26) 기밀 제256호 대정 10년 6월 23일, 「불령선인단체의 離叛에 관한 건」 참조; 이강훈,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서문당, 1981, 83~88쪽.

27)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21호(1921. 5. 31).

28) 「독립신문」, 1921.5.7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편, ‘제8회 임시의정원기사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2, 102쪽.

29) 「독립신문」, 1921.5.7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편, ‘제8회 임시의정원기사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2, 103쪽.

30) 「독립신문」, 1921.5.14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편, ‘제8회 임시의정원기사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2, 105쪽.

로 선출되면서 사임하였다. 취임하지 않았지만 4월 29일자 ‘임시대통령공함 제5호’에 따르면 법무차장으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이는 상해 교민사회와 임시정부에서 그의 신망과 위상을 짐작케 한다.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1921년 7월 태평양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졌다. 태평양지역에 이해 관계를 가진 열강의 군비축소문제와 원동(극동)문제를 다루어보자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1921년 7월 11일 하딩(Warren G. Harding)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11월 11일부터 회의를 갖자고 제안한 것이다. 군비축소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5개국이 대상이었다. 극동문제회의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벨기에·네덜란드·중국 등 9개국이 초청 대상이었다. 식민지 국가인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인물은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 서재필이었다. 그는 7월 14일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편지를 보내 이 회의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 판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임시정부는 7월 18일 국무총리 대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태평양회의에 관한 일체의 준비를 외무부에 일임하고, 대통령 및 구미위원부와 협의의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³²⁾ 7월 20일 이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과 구미위원부에 타전했다. 처음 얼마동안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이승만은 8월에 들어 점차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³³⁾

임시정부를 나와 국민대표회의 소집문제에 집중하던 안창호도 여기에 주목하였다. 흥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들은 태평양회의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하고, 국내외에서 지원활동을 추진하여 갔다. 먼저 안창호는 태평양회의연구회를 조직한 뒤, 8월 13일 저녁 상해 대한교민단 사무소에서 연설회를 열었다. 여기서 손정도와 도인권은 “조선 내지에서 일대 소요를 일으키지 않으면 조선문제는 하등 금회의(태평양)회의에서 주목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상해 재주 조선인은 이때 마땅히 내지(국내)로 돌아가 소요에 참가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안창호도 “조선인은 일치단결하여 자금의 모집 및 태평양회의에 제출할 재료의 수집에 노력해야”³⁴⁾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국내의 독립운동세력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거족적인 3.1운동을 일으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한 과거의 경험을 살린 것이다. 이날 연설회 직후 안창호의 발의로 태평양회의의외교후원회를 발기하고, 임시회장에 흥진, 임시서기에 김태연을 선임하였다. 태평양회의의외교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은 8월 17일이었다. “금월(8월) 17일 하오 8시에 법계 白爾路 大壽第公會堂에서 조직총회를 開하고 규칙통과와 임원선거를 行하였는데 선거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³⁵⁾라는 「독립신문」 기사로 확인된다. 이때 선임된 태평양회의의외교후원회 주요 역원은 다음과 같다.

간사장 흥진

서무전임간사 장봉, 서기 이병주, 同 간사 이탁, 장덕로, 김태연, 여운홍

31) 고경 제14378호 대정 10년 5월 11일, 「上海情報一束」 참조.

32)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28호(1921. 7. 20).

33) 김희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3(대한민국임시정부 1), 독립기념관, 2008, 171쪽.

34) 기밀 제95호 대정 10년 8월 17일, 「상해 불령선인에 관한 건」 참조.

35) 「독립신문」, 1921년 10월 5일자.

재무전임간사 조상섭, 서기 김인전, 同 간사 신현창, 양기하³⁶⁾

역원의 구성을 보면 대개 홍진과 안창호와 가까운 인물들이다. 우선 홍진과 가까운 인물들을 보자. 서무전임간사 장봉은 서울출신의 기호인물로 홍진과 국민대회를 조직하였고, 상해 망명 후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함께 활동한 사이이다. 서무서기 이병주는 「독립신문」 기사에는 李東周로 나타나지만, 李秉周가 맞다. 그는 충남 논산출신의 기호인물이고 연희전문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한 뒤 상해로 망명한 사람으로 홍진과 지연이 있었다. 서무간사 여운홍은 경기 양평출신의 기호인물로 임시의정원 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다. 홍진과는 지연이 있다. 재무서기 김인전은 충남 서천출신의 기호인물로 지연이 있고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같이 활동하였다. 재무간사 신현창도 충남 논산출신의 기호인물로 지연이 있고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같이 활동한 사이이다. 재무간사 양기하도 충남 공주출신의 기호인물로 지연이 있고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같이 활동하였다. 다음은 안창호와 가까운 인물들을 보자. 서무간사 이탁은 평남 성천출신의 서북인물로 도산과 지연이 있고 신민회 이래 활동 연인이 깊은 인물이다. 서무간사 김태연은 황해도 장연출신의 홍사단원으로 도산과 가까웠고, 홍진과 같이 임시의정원 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서무간사 장덕로는 평북 신의주출신의 서북인물로 도산과 지연이 있고 홍사단원으로 가까웠다. 재무전임간사 조상섭도 평북 의주출신의 서북인물로 도산과 지연이 있고 홍사단원으로 긴밀한 사이였고,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홍진과도 같이 활동하였다. 결국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는 홍진과 지연 및 활동연이 있는 인물들과 안창호 계열의 인물들이 교집합을 이뤄 만든 조직이었다. 지역으로 보면 기호인물과 서북인물,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계열의 원내 인물과 원외 인물, 이념적으로는 민족주의계열의 인물들이었다.

홍진은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이하 외교후원회로 약칭) 결성 이후 한편으로는 외교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의정원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벌여 나갔다. 원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우선 8월 17일 외교후원회 조직 이후 태평양회의가 열린 11월 12일³⁷⁾까지 7차례에 걸쳐 간사회를 열었다. 거의 매주 연 것이다. 주요 활동은 연설회 개최를 통한 선전 활동과 후원금 모집 활동이었다. 이를테면 외교후원회 주최로 9월 3일 오후 8시부터 프랑스조계 漢口路 慕爾堂(3.1당)에서 대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연사로 는 안창호와 김태연이 나섰고, 700여 원의 의연금도 모았다.³⁸⁾ 같은 날 외교후원회 간사장 홍진 명의로 후술하는 ‘선언서’도 발표하였다. 나아가 10월 3일 제5회 간사회를 漁陽里 12호에서 열고 「宣傳」이라는 이름의 기관지를 매주 토요일에 발행하기로 하고, 장봉을 주필로 정했다. 그런데 발간 비용 마련이 쉽지 않아 미루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10월 23일 제6회 간사회에서 「선전」 발행일을 매주 수요일로 변경한 뒤, 10월 24일 제7회 간사회에서 1개월간의 인쇄비는 홍진이 부담함으로써 10월 29일 「선전」 제1호가 발간되었다.³⁹⁾

1921년 11월 30일자 「선전」 제2호 1면에는 외교후원회 간사장 홍진 명의로 발표한 ‘선언서’를 게재하였

36) 「독립신문」, 1921년 10월 5일자.

37) 태평양회의는 11월 11일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전몰장병 추모일이라 하루 미루어 12일 개최되었다.

38) 「조선민족운동연감」, 1921년 9월 23일자.

39) 秘 고경 제29026호 대정 10년 11월 21일, 「국외정보」 참조.

다.⁴⁰⁾ 한국대표 이승만과 서재필에게 당부하는 글도 실었다. 여기서 외교후원회는 이들에게 5가지의 요구사항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① 미국 정부에 대하여 我 대표를 출석 참가케 함을 요구할 것, ② 열국에 대하여 我 대한의 완전 독립 승인을 요구할 것, ③ 일본에 대하여 일본이 한국을 병합함이 불법행위 또는 강박에 出함을 긍정하는 동시에 被併 후 종래 대한민국가 또는 국민에게 胎한 일체 손해를 배상케 함을 요구할 것, ④ 중화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완전 회복케 하며 국제간 평등권을 향유케 함을 요구할 것, ⑤ 시베리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정책을 방지하며 此 무조건 철병을 요구할 것⁴¹⁾ 등이다. 이는 11월 12일 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여기에 맞춰 9월에 발표한 선언서와 10월에 한국대표에게 보낸 글의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지원 활동과 자금 모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재무전임간사 조상섭을 남경으로 파견하여 교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⁴²⁾ 국내에서의 지원 활동과 자금 모집을 위해서는 서무간사 여운홍을 파견하였는데, 귀국 도중 검거되고 말았다.⁴³⁾ 이는 외교후원회가 당초 목적인 대로 자금 모집과 국내에서의 '소요' 운동을 추진한 사실을 말해준다. 자금모집의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조상섭의 보고에 의하면, 9월 2일부터 17일까지의 무금 및 기부금을 허락한 인원이 170여 명이고, 수입금은 859원이었다고 한다.⁴⁴⁾ 이와 같은 흥진의 원외에서의 태평양회의 후원 활동은 안창호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외교후원회를 조직한 뒤 연설회를 개최하여 독립의지를 고취하고, 의연금을 모금하고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나아가 국내 동포의 소요 운동을 추진하고, 「선전」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며 태평양회의의 한국대표단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쳐간 것이다.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원내 지원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우선 8월 중순경 흥진과 의정원 의원들은 태평양회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임시의정원 의원 흥진 등 24인이 금차 태평양회의의 際하여 대내외의 諸 政案에 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가급적 채용하기로 결정"⁴⁵⁾하였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요구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임시의정원 임시회의를 열었다. 국무총리 대리 신구식이 개원식 '告辭'에서, "이런 임시회의를 소집함은 이 태평양회의의 문제에 대하여 임시결산안, 대표인선안 등을 통과함을 요구 처리하려 함이다.……마지막으로 바라는 바는 금차 회의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고 민활히 처리하여 지체 없이 대사를 잘 진행케 함에 있다."⁴⁶⁾고 밝힌 바와 같이 임시결산안과 대표인선안 처리가 목적이었다. 흥진은 9월 29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정부의 설명을 들은 뒤, 代表長 이승만과 대표 서재필로 짜여진 '태평양회의에 출석할 대표 인선 동의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可 16 對 否 1의 표결로 처리하였다. 이어 논란 끝에 정부가 제안한 '임시예산 정부 일임 요구안'도 可 11 對 否 4의 표결로 마무리하였다.⁴⁷⁾ 한국대표단의 전권대표로 이승만, 부대표로 서재필을 뽑고,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나아가 의장인 자신을 비롯하여 신익희·손정도 등 의원 25인의 이름으로

4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II), 1968, 305~307쪽.

4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II), 307~309쪽.

42) 「조선민족운동연감」, 1921년 8월 30일자.

43) 「조선민족운동연감」, 1921년 10월 3일자.

44) 「조선민족운동연감」, 1921년 9월 23일자.

45)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34호(1921년 9월 14일자).

46) 국사편찬위원회 편, 「제9회 임시의정원기사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2, 115쪽.

47) 「독립신문」, 1921년 10월 28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편, 「제9회 임시의정원기사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2, 117~120쪽.

태평양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냈다.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국회 의원 등은 세계의 평화와 동양의 행복과 정의 인도를 위하여……한국 독립과 자주의 조건을 태평양회의에 제출하고 완전한 해결을 遂하여써 인류의 행복을 증진할 것”⁴⁸⁾을 요구한 것이다.

2.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선언서’와 ‘한국인민致태평양회의書’ 비교

태평양회의 시기 작성된 선언서로 짐작되는 것은 5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태평양회의에 제출할 我 대한민국의 요구 서류를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작성 통과하다.”⁴⁹⁾고 한데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요구 서류이다. 정부에서 작성한 이 서류가 무엇인지, 그 속에 어떤 ‘선언서’가 포함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태평양회의에 흥진 등 임시의정원 의원 25인 이름으로 보낸 ‘독립청원서’이다. 원본은 전하지 않지만, 일제가 수집한 정보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1975년 편찬한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234~235쪽)에 ‘태평양회의에 보낸 의원의 독립청원서’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실린 것이 그것이다. 발표 시기는 “대한민국 3년 월 일”로 표시되었기에 정확한 월일은 알 수 없지만, 태평양회의에 대한 선언서가 잇달아 발표되는 1921년 9월경으로 추정된다. 주요한 논리는 “극동문제의 해결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으로부터 시작”하고, “한국의 독립은 세계 영구 평화의 근본문제”라고 하는 동양평화론에 근거하였다. 이 점에서 후술한 외교후원회에서 간사장 흥진 명의로 발표한 ‘선언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태평양회의연구회에서 작성한 ‘獻議書’이다. “태평양회의연구회에서 제출한 헌의서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가급적 채용하기로 결정하다.”⁵⁰⁾고 하는 데서 드러난 태평양회의연구회의 헌의서이다. 이는 태평양회의연구회를 주도한 안창호 계열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알 수 없다. 아마도 내용은 후술한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선언서’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짐작한다.

네 번째는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에서 간사장 흥진 명의로 9월에 발표한 ‘선언서’이다. 이 선언서의 원본은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만오흥진전집』에 전하고,⁵¹⁾ 내용은 전술한 외교후원회 기관지 「선전」 제2호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Ⅱ)에도 수록되어 있다.⁵²⁾

다섯 번째는 ‘한국인민致태평양회의書’이다. 이는 9월에 국내에서 작성되어 임시정부를 거쳐 태평양회의에 전달되었다. 이 문서는 태평양회의가 열린 직후인 11월 19일자 「독립신문」 1면에 게재되었다.⁵³⁾ 한국대표단은 이 문서를 12월 28일 태평양회의 사무국에 제출하고,⁵⁴⁾ 전문을 영어번역본과 함께 팸플릿으로 만들어 참가국 대표에게 보내는 동시에 1922년 1월 1일 언론에 공개했다.⁵⁵⁾ 이 가운데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선언

48)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5, 234~235쪽; 만오흥진전집간행위원회 편, 『만오흥진전집』, 국회도서관, 2006, 510쪽.

49)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34호(1921년 9월 14일자).

50)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34호(1921년 9월 14일자).

51) 만오흥진전집간행위원회 편, 『만오흥진전집』, 국회도서관, 2006, 162~164쪽.

5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Ⅱ), 1968, 305~307쪽.

53) 「독립신문」, 1921년 11월 19일자.

54) 「독립신문」, 1922년 1월 1일자.

서'와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의' 내용을 <표 1>과 <표 2>로 살펴보자.

<표 1>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선언서'와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의' 개요

명 칭	선언서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의
발표일	대한민국 3년 9월 일	건국기원 4254년 9월 일
발표주체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간사장 홍진	韓國人民等(국민공회대표 이상재 등 372인 서명날인)
출 전	국회도서관 편, 『만오홍진전집』, 2006, 162~164쪽(원본);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Ⅱ), 1968, 305~307쪽; 『선전』 제2호(1921.11.30일자)	『독립신문』 1921년 11월 19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Ⅱ), 1968, 301~305쪽;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8, 연세대현대한국학연구소, 1990, 390~393쪽.

<표 2>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선언서'와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의' 내용

구 분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선언서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의	주旨(선언서/한국인민書)
1 단 락	宣言書 강권이 正理를 凌轢하며 富力이 公道를 蹂躪한단 오날날 狀勢에서 오히려 타인의 鼻息을 仰하야 혹자의 승리를 望한다 함은 참 期必키 難한 바이 라. 雖然이나 博愛는 인류의 良能이요 公論은 천 하의 正氣라. 苟히 至仁至義의 本領을 발휘하여 진심으로 此旨를 關切한다 하면 아모리 弱者貧者 라도 능히 종래의 역경을 脫免하고 共存同榮의 복락을 享受할 것도 가능의 事이며 又或 均勢와 權衡을 취할만한 필요로나 인류 사조의 大세 취 향을 因하야 往往 弱者貧者의 승리를 조성케 된 은 이미 국제 關係上 屢見한 바인 즉 이른바 외교 정책은 국가운명의 절대한 關係가 有한 자이라.	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 今年 十一月十一日에 華盛頓에서 開하는 太平洋 會議는 正義人道에 基하여 世界平和를 擁護하고 民族共存을 計圖하러 함이라 我韓國人民은 此를 熱誠으로 歡迎하는 同時에 我等은 世界列國이 我 韓國政府委員의 出席을 容恕하기를 懇望하노라.	외교정책의 중요성 = 국가 운명 좌우 / 태평양회의의 개최 의의 = 세계평화와 민족공존 도모
2 단 락	동양평화의 문제난 오래동안 국제간 現안에 속 하였으나 歐西의 풍운이 吃緊됨을 因하야 열강 은 此를 해결키 못하였는데 間에 일본은 禍心을 包藏하고 美名을 假借하야 其 凶暴貪濫의 軍國주의 를 실행케 됨에 我韓을 吞併하고 中俄大陸을 侵佔함에 至한으로 동양의 평화는 갈수록 險악 한 狀態에 陷하였도다.	무릇 韓國은 立國 四千二百餘年에 一貫된 獨立自 由의 國으로 相當한 文化生活을 作하였고 一回도 異民族의 統治를 受한 事가 없었나니 此는 我等의 歷史가 證明하는 바라 或 異民族이 我 韓國을 侵 犯한 時가 있으나 我 韓人은 武力이나 外交로 此 를 다 斥退하고 말았나니 彼 漢隋唐의 等を 擊却 하여 國威를 宣揚한 것과 彼 元明清의 等과 角逐 하여 國權을 保存한 것이 곧 此의 實例이라 이렇 게 歷代의 異民族이 我 韓國을 侵犯한 者이 多하 나 彼等 異民族은 모두 失敗에 歸하였고 我 韓國 은 繼續하여 獨立自由를 確保하였나니 此는 我 韓 國人民의 民族性이 獨立의이나 自由의이어서 決코 異民族의 制壓을 受치 아니하는 증거로다.	일본의 침략 = 동양평화 파괴 (동양평화론 제시) / 한국의 유구한 역사 = 독립 자유국으로 문화생활 영위 (역사문화민족 강조)

55) 고정휴,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의서(1921) 진위 논란과 서명인 분석」, 67쪽.

구분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선언서	한국인민대평양회의의서	주旨(선언서/한국인민書)
3 단 락	今에 歐戰이 중국을 告하고 平화가 극복되매 미 총통 허대요(하딩)씨의 발기로 태평양회의를 소집함은 其 본의가 동양평화를 근본적으로 수립코 저 함에 在함으로 彼 평화의 張本인 각 문제를 축조 해결케 되는 당연한 순서이나 만일 그들의 시선이 此에 在지 안코 의연히 약육강식의 故態에서 姑息의 현상유지에 불과하리라 하면 동양평화는 마침내 실현될 일이 無할 뿐 아니라 吾族의 禍患 어찌 限量하리오. 그럼으로 태평양회의의 난 우리의 생명문제 되매 無疑하다. 회의의 결과 天然의 복음이 성숙한 과실과 如히 우리 신변에 落來할지라도 우리난 이를 수취함에 상당한 노력을 가하지 아니치 못할 여든 회복을 점칠 수 업난이 境遇에서 어찌 아니 힘을 아오르고 소래를 가지하야 死生으로써 爭하리오.	我 韓國이 近代의 失政으로 國力이 衰弱한 中에 日本이 軍國主義로 起하여 平和를 攪亂하고 侵略을 肆行하여 드디어 韓國에 着手하여 韓國을 合併한지라 日本이 韓國을 合併한 以來에 그 韓國에 行하는 政治가 甚히 惡하여 外로는 粉飾을 事하며 內로는 壓迫을 가하여 我 韓人 二千萬은 生命의 危險을 當하였나니 精神으로나 物質로나 모든 方面에 다 前無의 慘狀을 遭한지라 그 一二의 實例를 擧하면 (一) 韓人의 教育機關이 乏少하여 就學兒童이 百分의 二에 未滿하고 何等의 高等教育機關이 없으며 (二) 東洋拓殖會社가 韓國의 沃土 三分의 一을 占하여 日本島民을 移植하므로 農事本位인 韓人이 많이 生計가 剝奪되어 流離失所하며 其外 工商은 온갖 殖産에다 日本人 本位를 取하여 我 韓人은 生活資料를 喪하였고 (三) 韓人의 生命과 身體와 自由와 人權과 文化와 道德이 많이 破壞를 당하며 世界로서 輸入되는 宗教와 學術과 工藝와 그外 모든 文明이 많이 阻礙를 當하여 韓人은 永久히 落伍者로 人類共同의 生存權을 失게 되는 危險에 入하였도다.	태평양회의 소집 의의 = 동양평화 수립 /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 진상 폭로(교육· 실업의 피해, 인권과 문화의 파괴)
4 단 락	往事를 회고하건대 직접관계가 무한 歐戰 강화회 당시에도 우리난 오히려 壯絶快絶한 독립운동을 제창하야 伊來 분투한 결과 세계에 향하여 광채 잇난 선전과 嘖嘖한 聲譽를 博得하였고 각 우방은 또한 열렬한 동정으로써 萬口一聲의 독립승인 문제가 咄嗟間 성공을 可期할 만한 예상 이외에 대승리를 득하였거든 하물며 금차 태평양회의와 如함은 곧 우리의 근거지인 동아 전부를 문제 삼아 직접으로 토의 해결케 되는 大公堂을 개설함 이리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상 완급과 輕重의 別이 강화회의 당시에 比하면 天壤으로써 論할 바 아니라 頭上에 霹靂은 吾人의 神魂을 震驚하며 眼前의 풍광은 오인의 생명을 위협한단 금일에 우리난 도리어 彼岸에 火와 如히 수수방관한 無神經者의 작용을 취함이 可할가. 天은 자조를 助하나니 우리난 독립을 선포한 지 3년 동안에 衝天의 敵愾와 憤冤을 伸雪할 기회가 差晚됨을 恨하였든 바 何幸 明天이 默祐하사 千載一時의 호기를 당하였는 즉 莫當히 萬有를 다 희생하고 동일한 기지 하에서 勇壯한 후원군이 되야 어대까지 노력분투하면 결국 민족한 승리를 可期하려니와 만일 悠悠汎汎하야 時日만 虛費하면 우리의 전도난 더욱 悲涼할 뿐이로다.	太平洋岸에 一重要 國家인 韓國이 이렇게 日本의 蹂躪을 當하는 그 韓國人의 危險인 뿐 아니라 實로 世界의 一大缺陷이니 곧 韓國은 世界의 平和에 不少한 影響을 가진 所以라 東洋의 平和는 흔히 韓國으로 左右되나니 近代에 日淸 日露戰役이 다 韓國으로 因하여 生겼고 同時에 淸露가 衰沉하고 日本이 專橫함도 韓國問題에서 決定된 事實이라 본來에 韓國은 東洋의 要衝에 있어 中露日의 三國間에 介在하였나니 韓國은 實로 東洋의 中心이라 現今 또 將來에 世界의 問題는 東洋을 中心으로 하게 되나니 이 東洋의 中心인 韓國의 問題가 곧 世界의 問題가 되는지라 今番 太平洋會議의 議案도 또한 韓國을 重要視 아니할 수 없나니 곧 韓國問題를 最善하게 解決하지 못하면 東洋의 平和는 保全할 수 없고 同時에 太平洋會議의 目的인 世界平和를 成就할 수 없는지라 韓國人의 安全을 保하고 何等 異民族이 韓國을 蹂躪치 못하게 되고야 비로소 東洋 各 關係列國의 猜疑 爭鬭가 絶하여 東洋의 平和 世界의 平和가 있을지라.	태평양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 천재일우의 기회로 용장한 후원 필요 / 한국문제의 중요성 강조 = 한국독립은 동양평화의 근본이자 세계평화의 기초(동양평화 론 제시)

구 분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선언서	한국인민致태평양회의書	주旨(선언서 /한국인민書)
5 단 락	원래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가적 대정신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근거함인 즉 오인의 牢固한 결심과 열렬한 동작은 결코 타인의 力으로써 좌우할 바 아니라. 세계 何國을 물론하고 우리의 독립을 방해한 者난 곧 우리의 적이라. 오인은 무슨 장해가 앞을 막드래도 생사를 불고하고 우리의 목적을 達到하기까지 적의 앞으로 맹진한 外에 他事가 無할 지니 이난 吾人の 當당한 정의요 또 근본방침될 뿐 아니라 더욱 외교상 막대한 요건이 될지라. 何也오 하면 彼 열강은 적극적으로 동양평화를 구가하면서 破 평화의 화근인 한국문제를 完善 해결치 아니치 못할지니 곧 한국의 독립을 승인치 않으면 동양평화는 도저히 실현치 못할 緣故라.	以上에 韓國의 民族的 本能과 韓人이 世界에 對한 關係를 概言한지라 最終에 吾人은 日本의 韓國合併을 否認하노니 日本이 韓國을 合併함은 本來에 韓國民族의 意思가 아닌 同時에 日本과 合併을 約한 代理帝는 實로 光武皇帝의 代理뿐이오 韓國의 主權者가 아니라 곧 光武皇帝는 그 太子에게 禪位하지 아니하였고 (其時 詔勅 原文參照) 오직 代理를 命하였나니 그런즉 代理帝는 國家의 主權者가 아니라 本來 國家의 主權은 國家를 組織한 民衆에게 있는 同時에 이 主權代表者인 君主는 光武皇帝이었고 代理帝는 아니었나니 主權代表者 아닌 代理帝와 合併을 約한 것은 我國民이 絕對로 否認하는지라 茲에 吾人은 日本의 韓國合併을 否認하는 同時에 在〇〇韓國政府를 完全히 韓國政府로 聲明하고 因하여 列國에 向하여 我 韓國에서 派遣하는 委員의 出席權을 要求하고 同時에 列國이 日本의 武力政策을 防止하여 世界의 平和와 韓國의 獨立自由를 爲하여 努力하기를 祈願하노라 建國紀元 四二五四年 九月 韓國人民等	태평양회의에 참가하는 열강에 대한 요구 = 한국독립 승인(동양평화의 복원) /
6 단 락	그러면 內으로 근본운동과 外으로 국제문제가 초미의 急에 在한 오인은 무엇을 고려하며 무엇을 較計하리요. 동포여 동포여 분기하시오. 오인의 활동시대가 왔나이다. 오인의 생명과 재산과 지력을 다 희생할 날도 이날이다. 주저말고 방향말고 곳곳이 충성을 다하여 나아가 봅시다. 본회 동인 등은 이같이 절박한 시기를 당하여 동포와 공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혈성으로 위선 본회를 조직하고 좌의 사향을 결의하였기 茲에 선언하노라.		태평양회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 = 생명과 재산과 지력 총동원
7 단 락	결의 1. 태평양회의에 참여한 列邦은 동양평화의 기본문제인 대한독립을 완전 승인하기까지 적극적 활동을 계속할 事 2. 내외 각 지방에 在한 각 단체나 개인을 물론하고 호상 연락을 취하여 盛히 고취하며 선전하여서 일 치행동을 圖할 事 3. 전국민으로 하여금 대내 대외에 맹렬한 운동을 行게 하며 상당한 금전을 수합하여서 경비에 充用할 事 대한민국 3년 9월 일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간사장 홍 진		열강에 '대한독립' 승인 요구, 대한국민의 일치행동과 지원 결의

두 문서의 상관성을 살펴보자. 우선 1921년 9월로 발표 시기는 같지만, 발표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는 임시정부의 연호로 '대한민국'을 표기하였고, 후자는 '건국기원'을 사용하였다. 이는 발표주체가 다른 까닭이다. 전자는 임시정부 외곽단체인 외교후원회 간사장 홍진 명의이고, 후자는 '한국인민'으로 이상재 등 372인이 대표로 서명 날인한 것이다. 이것이 전자는 임시정부의 연호인 '대한민국'을 쓰고, 후자는 임시정부의 연호가 아닌 '건국기원'을 쓴 이유이다. 한국인민 대표 372명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國民公會' 대표로 서

명한 梁起鐸을 제외하고는 임시정부와 직접 관련된 인물이 드물다.⁵⁶⁾ 그렇다면 후자는 “國內에 在한 我同胞들은 지난(11월) 十一日 華盛頓에서 열린 太平洋會議에 致하는 書를 作成하여 此를 上海 某氏에게 送한 故로 該氏는 此를 政府 當局者에게 托하여 華盛頓에 보내”⁵⁷⁾라는 기사로 보아, 임시정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작성하여 보내온 것으로 봐야한다. 이는 국호 사용을 봐도 전자는 ‘한국’과 ‘대한’을 같이 사용하였지만, 후자는 ‘대한’이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한국’만을 사용한 점에서 봐도 그렇다.

둘째, 두 문서의 논리구조가 동양평화론에 입각해 비슷하다는 점이다.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반대논리로 구사된 ‘동양평화론’이 두 문서에 온존하게 드러나 있다. 한국의 독립은 동양평화의 근본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의 기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열강을 향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동양평화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루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점은 3.1운동 시기 민족대표의 선언서를 비롯한 여러 독립선언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논리구조이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 인도와 자유 평화 공존의 논리로 국제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평화의 기초로 동양평화론을 제시하여 열강을 설득하는 방식인 것이다.

셋째,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실상 폭로에 대한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전자는 동양평화의 파괴자로서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는데 그쳤지만, 후자는 매우 구체적으로 일제 침략과 식민통치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교육과 실업의 피해, 인권과 문화의 파괴 등 일제 식민통치의 침탈 현황을 상세하게 적시하였다. 이는 두 문서가 지향하는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전자는 국제 열강을 향한 한국의 독립 요구와 더불어 태평양회의에 대한 국내외 동포의 일치단결한 지원을 호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반면에 후자는 오로지 국제 열강에 대한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까닭이다. 그래서 일제의 압제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민의 고통스러운 삶과 민족문화 말살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낱알이 고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문서의 쓰임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는 국내외 동포와 태평양회의의 참가국을 향해 발표한 ‘선언서’이다. 후자는 태평양회의에 제출한 한국인민의 ‘요구서’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전자는 국제사회를 향해 대한독립의 승인을 요구하는 한편, 대한국민을 향해 태평양회의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므로 생명과 재산과 지력을 총동원하는 일치단결된 후원 활동을 절실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국내외 동포보다는 국제 열강과 세계 인류를 향해 한국정부의 승인과 태평양회의에 대한 출석권리를 요구하고, 나아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 것이다.

IV. 맺음말

태평양회의를 전후한 시기 국내와 임시정부에서 홍진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홍진은 한말부터 1910

56) 고정휴, 「한국인민지태평양회의서」(1921) 진위 논란과 서명인 분석」 참조.

57) 「독립신문」, 1921년 11월 19일자.

년대에 걸쳐 충주지역에서 검사,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맥과 지연을 쌓았다. 3.1 운동 시기에는 넓은 인맥과 지연을 바탕으로 국민대회를 조직하여 한성정부 수립 운동을 주도하였다. 한성정부 각료와 13도 대표자, 그리고 평정관 등 주요 인물을 선정하는데, 그동안 쌓았던 인맥과 지연을 활용한 것이다. 특히 한성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면서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접촉하여 인맥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와 사고를 축적하였다. 이는 향후 그의 활동 자산이 되고, 통합적 사고와 포용적 품성을 키우는 내적 요인이 되었다.

상해 망명 이후 홍진은 빠르게 민족지도자로 부상하여 임시의정원 의원과 의장, 대한교민단장과 태평양회의 의외후원회 간사장이 되었다. 물론 이런 성장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인적 자산과 품성이 밑받침되었고, 초기 임시정부를 주도하던 안창호의 조력도 작용했다. 태평양회의 시기 홍진은 외교후원회와 임시의정원을 통해 여러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원내에서는 정부를 도와 한국대표단을 선출하고 임시에산을 통과시키고, 25인의 의원 명의로 '독립청원서'를 태평양회의에 보냈다. 원외에서는 외교후원회의 간사장을 맡아 연설회를 개최하여 독립의지를 고취하며 후원 자금을 모집하였다. 나아가 '선언서'를 발표하고 「선전」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며 외곽에서 태평양회의의 한국대표단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열강은 한국의 독립 승인은커녕 한국대표단의 참가도 거부하였고, 결국 태평양회의는 1922년 2월 6일 속절없이 끝나버렸다.

이후의 정세는 태평양회의에 집중했던 임시정부는 물론 민족주의세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임시정부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어 태평양회의 시기 침잠했던 국민대표회의의 소집 문제가 재차 부상하였다. 태평양회의에 대항하여 같은 시기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의(극동인민대표회의)에서 1920년 5월 이미 임시정부를 승인했던 레닌정부는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여 사회주의세력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상해는 물론 국내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전파되고 운동세력은 크게 성장하였던 것이다. 민족주의세력은 분열하여 약화되었다. 태평양회의에서 부상한 일본의 위세를 목격하면서 절대독립을 포기하고 자치를 지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민족개량주의)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세력은 '절대독립론'을 고수하는 비타협파와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파로 나뉘고, 결국 타협파는 독립운동전선에서 이탈하면서 민족주의세력은 약화되어 갔다.

임시정부 또한 태평양회의에 대한 외교 실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다. 태평양회의가 끝난 뒤 1922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내무총장 이동녕을 필두로 국무총리 대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재무총장 이시영 등 국무위원이 총사직한 것이다. 원내외에 왕성하게 태평양회의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쳤던 홍진도 책임을 통감하고 4월 3일 의정원 의장을 사임하였다. 임시대통령으로 한국대표단을 이끌었던 이승만도 실패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다. 1921년 초부터 불거진 사퇴 압력을 태평양회의로 일시 피해 갔지만, 태평양회의의 성과 없이 끝나자 지도력은 더욱 약화되고 사퇴 압력은 가중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Ⅱ), 1968.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9, 1994.
-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1(헌법·공보),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2(조선민족운동연감),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별책 1(독립신문), 2005.
- 만오홍진전집간행위원회 편, 『만오홍진전집』, 국회도서관, 2006.
-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 반병률, 『통합 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 신서원, 2019.
-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 김희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3(대한민국임시정부 I), 독립기념관, 2008.
-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역사공간, 2016.
-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의 인물과 노선』, 한울, 2004.
- 김용달,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년의 역사』, 역사공간, 2019.
- 한시준, 「한성정부 수립과 홍진」, 『한국근현대사연구』 2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 한시준, 「홍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원문화연구』 13,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0.
- 고정휴,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1921) 진위 논란과 서명인 분석」, 『한국근현대사연구』 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 고정휴, 「위싱턴회의(1921~1922)와 한국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 이현주, 「3.1운동 직후 ‘국민대회’와 임시정부 수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 방선주, 「1921~22년의 위싱턴회의와 재미한인의 독립청원운동」,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8, 국사편찬위원회, 1989.

* 이 논문은 2022년 2월 24일에 투고되어,
2022년 3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4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Pacific Conference and Hong-jin

Kim, Yongdal*

This study examines Hong Jin's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Pacific Conference(Washington Conference) and his role in the Pacific Conference. From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to the 1910s, Hong Jin worked as a prosecutor in Chungju and as a lawyer in the northwest, including Pyongyang, and built connections and delays. During the 3.1 Movement period, he organized a national competition using his wide network and delay to carry out the movement to establish the Hanseong government. He selected key figures such as ministers of the Hanseong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the 13th province, and equator, using the personal connections and delays he had accumulated over the years.

After exile in Shanghai, Hong Jin quickly rose to prominence as a national leader, becoming a member of the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and chairman, and secretary-general of the Pacific Conference Diplomatic Support Association, this growth was supported by the accumulated human assets and character, and the help of Ahn Chang-ho, who l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arly days, also acted. During the Pacific Conference, Jin Hong performed various support activities through the Diplomatic Support Association and the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Inside the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the provisional government helped the government select the Korean delegation, passed the provisional budget, and sent the "Petition for Independence" to the Pacific Conference in the name of 25 lawmakers. Outside of the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he served as the secretary of the Diplomatic Support Association and held speeches to inspire the will of independence and raise funds for support. He further supported the Korean delegation to the Pacific Conference by issuing the 'Declaration' and publishing the newspaper 'Shenzhen'. However, international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refused to recognize Korea's independence and even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delegation.

The subsequent situation resulted in the weakening of the nationalist forces as well 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focused on the Pacific Conference. The role and status of the

* Former Research Director,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Provisional Government weakened, and the issue of convening the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which had been quiet during the Pacific Conference, resurfaced. At the Conference of Representatives of Far East National Revolutionaries(Far East People's Congress) held in Moscow at the same time against the Pacific Conference, the Lenin government approv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supporte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Unification Front of the Comintern to promote the socialist forces. Gave me wings The spread of socialism not only in Shanghai but also in Korea expanded and its power expanded. The nationalist forces were divided and weakened. Witnessing the elevated status of Japan at the Pacific Conference, a compromising nationalist(national reformist) force has emerged that has given up absolute independence and pursued autonomy. As a result, the nationalist forces were divided into the non-compromising group, which adheres to the 'absolute independence' theory, and the compromise group, which insists on autonom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lso could not escape responsibility for the diplomatic failure of the Pacific Conference. After the Pacific Conference, from the end of February to mid-March 1922, Prime Minister Lee Dong-nyeong, acting prime minister and foreign secretary Shin Shin-sik, and finance minister Lee Si-young resigned. Hong Jin, who had actively supported the Pacific Conferenc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realized his responsibility and resigned as the chairman of the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on April 3rd. Syng-man Rhee, the interim president and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delegation, could not escape the responsibility of failure. The pressure to resign from the beginning of 1921 was temporarily avoided by the Pacific Conference, but as the conference ended without results, the pressure to resign was increased.

[Keywords] Hong-jin, 3.1 Movement,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rovisional Government),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Pacific Conference(Washington Conference), Pacific Conference Diplomatic Support Association, Ahn Chang-ho

